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 2024) 개최



심장혈관연구재단(이사장 박승정 서울아산병원 석좌교수)이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제29회 관상동맥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TCTAP 2024)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됐다. TCTAP는 1995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전 세계 심장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 학술행사다. 올해 학술회의에는 54개국 3,000여 명의 심장 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젊은 의학자나 개발도상국의 의료진 등을 위해 일부 세션은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됐다. 학회에서는 ▲심장중재시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초 및 심화 주제를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TCTAP 워크숍' ▲국내·외 유수 병원들의 시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라이브 케이스 세션' ▲고난도 술기에 대한 실습형 강의인 '트레이닝 코스' 등이 진행됐으며 ▲만성폐쇄성 병변에서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좌주간부 및 다혈관 질환의 최신 치료 ▲심혈관 이미지와 생리학 ▲구조적 심장질환 등의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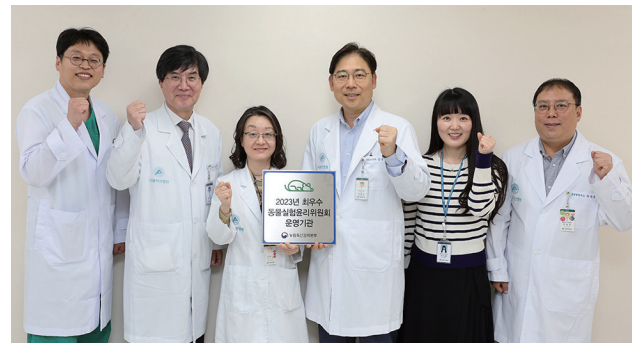
암치료 성과 담은 '암분야 의료질 평가 보고서' 발간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의료진이 암 치료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암 치료 성과와 암병원 역사 및 현황을 담은 '암분야 의료질 평가 보고서(Outcomes Book)'를 4월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 대한 2022년까지의 치료 성과 자료가 담겨 있다. 또한 다학제 암통합진료 연간 6천 2백여 건, 위암 수술 연 평균 1천 6백여 건과 같은 양적 지표와 직장암 수술 후 5년 생존율 92.6%, 폐암 최소침습 수술 비율 93.6%와 같은 질적 지표가 포함됐다.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서 최우수 운영기관 선정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왼쪽 두번째), 김나영 동물실험윤리위원장(왼쪽 세번째), 김용길 융합연구지원센터소장(왼쪽 네번째)과 직원들.

4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을 최우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생명과학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1990년 서울아산병원 산하에 설립된 아산생명과학연구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심의 후 감독, 실험자 교육 등 총 113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